

위선이 깨어지고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본문: 창세기 38:12-3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cuK9UJoAIP8?si=TuOG6c4BkDzYo6fy> (주소 클릭-> 열기 클릭)

[새벽 말씀 묵상]

우리는 세상을 살며 겉로는 거룩한 성도인 척 포장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은밀한 정욕과 이기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역시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며 의로운 심판자인 척 무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정욕에 눈이 멀어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와 동침했던, 내 눈의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만 가차 없이 정죄하는 철저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내놓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을 때, 유다는 변명하거나 핑계 대지 않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며 자신의 죄인 됨을 온전히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히 항복하고 엎드린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악투성이인 그를 굳건한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마침내 그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위선과 치부가 드러나는 수치의 자리가 헛된 핑계를 멈추고 엎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던 모든 가식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함마저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위대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관찰]

1.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분노하며 그녀를 어떻게 하라고 가차 없이 명령합니까? (창 38:24)
2. 다말이 내놓은 명백한 증거물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유다는 어떤 고백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합니까? (창 38:26)

[삶의 적용]

1. 내 눈의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의 작은 '티'만 가차 없이 정죄하며 의로운 심판자의 자리에 섰던 나의 위선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2. 헛된 변명으로 나를 포장하려던 마음을 멈추고, 오늘 십자가 앞에 나의 흉악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남을 정죄하던 나의 모든 위선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정직하게 엎드림으로써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